



제2의 도약이라는 마음가짐



2006년 병술(丙戌)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전국의 포장산업계 종사자 및 가족, 관계자 제위들께 행복과 번영의 한해가 되시길 기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사상유래가 없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전 세계가 경기위축체제로 돌입하고 비산유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극소수의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이 비상체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협회는 국제유가에 가장 민감한 석유산업의 원자재를 주 재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컸으며, 특히 그라비아잉크는 원재료를 거의가 수입에 의존하는 특성상,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의 연속이었고, 그라비아잉크의 사용자(user)인 연포장가공업계가 사상최악의 불황인 점을 감안, 가격인상은 미미한 실정이었으며, 연포장가공업계와 동반하여 지난 2005년을 숨 가쁘게 어려운 고비들을 넘겨왔습니다.

다행히도 각종 언론에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경기지수도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발표는 2006년에는 보다 희망적인 해가 예상되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협회 회원사들은 제2의 도약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협회 제규약들을 스스로 지키며, 활발한 기술개발과 품질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 회원사 제품 구매 확대 등이 확립될 때 우리협회 전 회원사가 정상적인 경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은 바입니다.

(사)한국포장협회 산하 “잉크분과위원회”는 2년 전에 국내 최초 「표준칼러북」을 제작, 우리협회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 올리며 향후, 국내경기가 정상과도에 진입할 시 재시도 할 것임을 감히 약속드리오며 다시 한번 2006년 전국의 포장산업계 종사자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 영 식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장